

치 사

수덕사노인요양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교사회복지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관 속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이며 모두가 행복해야 나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이념으로, 물질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고른 분배와 소통을 꾀하고,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부처님의 자비와 구제중생의 원력으로 불교계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복지 진흥에 이바지하며, 제반 조사와 교육·홍보를 통하여 문화 복지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덕사노인요양원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켜 나가는 중심 기관이 될 것이며,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진정 아름답듯이 수덕사노인요양원을 통해 동체대비(同體大悲)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부처님 정신을 적극 실천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안한 생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편견과 집착,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기아상(自欺我相)의 그늘에서 벗어나 깨우침의 지혜로 노력하는 안심입명처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오늘 그 깨우침의 지혜로 노력하겠다는 서원을 담아 이 자리에서 바르고 새롭게 한걸음씩 내딛으시기를 발원합니다.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자비로운 마음의 싹이 움트고, 그 희망의 싹이 내 이웃과 생명들의 서원으로 함께해 온 세상이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덕사노인요양원을 이처럼 훌륭하게 마련해 주신 보건복지부 및 예산군청 그리고 수덕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관하는 수덕사노인요양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승 합장